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 (2023년 4월 16일)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 20,19-31)



의심에 찬 토마스 |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출처: 전주주보, 2021.4.11)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25장 ‘사랑의 하느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연중

사랑의 하느님

25

장엄하게 Trad. Melody

1. 사 랑 의 하 느 님 자 비 의 하 느 님
 2. 거 룩 한 삼 위 여 사 랑 의 일 치 여
 3. 주 님 을 믿 으 며 주 님 께 바 라 며

우 리 의 몸 과 맘 받 으 십 소 서
 우 모 두 가 하 나로 찬 미 하 오 니
 주 님 을 모 시 고 사 랑 하 오 니

은 총 의 샘 이 여 위 로 의 샘 이 여
 구 원 의 샘 이 여 지 혜 의 샘 이 여
 이 세 상 끝 날 에 이 영 혼 돌 보 사

우 리 의 애 원 을 들 으 소 서
 영 원 한 찬 행 미 를 받 으 소 서
 영 원 한 행 복 을 주 십 소 서

-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아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2.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 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3. 하느님 말씀

- 한 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과 요한 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또는 한 사람이 한 절 혹은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43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44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46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47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토마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서를 쓴 목적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0초)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또는 한 사람이 한 절 혹은 두 절씩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습니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서 한 단어나 한 구절 또는 한 문장을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4.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그 말씀에 따라 생활에서 실천할 거리가 있는 경우 나누어 봅시다.

5. 실천 사항 정하기

- 우리 반의 실천 사항들을 함께 정하겠습니다.

6. 전 모임 기록 낭독 및 출석 확인

- 지난번 반 회의록 낭독 및 출석 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 게스트가 있는 경우에 소개합니다.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8. 본당 성서 공부 질문 사항

-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성서 공부를 본당 홈페이지 링크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ible-study/>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 공부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반장님이나 질문 링크 <https://forms.gle/EUiYKfnTfgku49fF7>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Q 창세기 4장 14절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주님께서 카일을 쫓아내실 때 카인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카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다른 곳에 사람이 이미 더 있었나요?

A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성서에 대한 질문이라면 평일 성서 공부 진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환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의 저자는 카인과 아벨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없다는 상황의 논리적인 전개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자는 살인이라는 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그 관계성을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앞뒤 이야기의 논리적인 전개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주 넓게 볼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삶의 숙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생명이라는 관계성에 저자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Q 창세기 6장 6절에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6장 7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후회"라 함은 자기가 내린 결정에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후회를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서 다른 부분에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맞는 걸까요?

A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후회를 하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시다가 이내 화를 푸시기도 하고 질투를 하시기도 하고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수도 없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화적인 요소가 성서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화적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인간이나 자연의 모습을 토대로 신을 상상하는 일을 신화적이라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 인간의 모습 안에서 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적 요소도 신의 요소 안에 포함이 되었고 그러한 고대 근동의 신화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성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느님은 정의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느님 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에 따른 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구약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Q 6장 19절에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7장 2-3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되어있습니다. 뭔가 좀 문맥이 맞지 않는 듯 해서요. 앞에서는 한 쌍이라고 하셨다가 뒤에는 일곱 쌍씩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이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 좋은 지적입니다. 창세기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승이 한 이야기에 병렬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테면 두 가지 이야기를 덮어쓰기 해서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어쓰기를 해서 두가지 전승을 모두 살려 놓은 것입니다. 성서의 독특한 편집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6,19절의 이야기는 제사 때에 바쳐야 하는 제물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이야기가 되고 7,2절의 이야기는 제사 때에 쓰일 짐승의 수를 고려한 셈 법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제사 때 쓸 수가 없으니 한 쌍씩만 실었고 정한 짐승은 제사 때 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일곱 쌍씩 실은 겁니다. 아직 율법도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노아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저자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7,2절의 저자는 6,19절의 저자보다 제사에 더 관심이 많은 사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함께하는 소공동체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네방네 메아리

- 반 모임의 활성화와 성당 내 반별 봉사활동을 위해 반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BL)
-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원로 교우들의 신앙심을 본받고 그 뒤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CT)
- “하느님은 영이시다.”라는 복음 말씀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CT)
-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로 기도에 임합니다. (CT)
-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말씀에 따라 ‘미사에 집중하려 노력하기’를 우리 반의 실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NV1)
- 매일 성경을 읽도록 노력합니다. (NV2, RC3)
- 본당에 아프신 분들, 생일을 맞아 축하받으실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NV4)
-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NV4)
-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는 어려웠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TR3)
-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함께 받아마시는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는 삶 속에서 각자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뿌리신 씨앗의 열매를 맺는 수확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TR3)
-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RC2)
-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영원한 알곡’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RC2)
- 주님은 항상 현존해 계셨는데, 때로 내가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현존과 관계없는 오로지 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RC2)
- 바쁜 삶 속에서 버둥거리는 나 자신을 보며, 신앙 안에서 주님께 내 삶의 버거움을 맡기고 의지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RC2)
- 사순 기간 동안 피정과 미사 참례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C2)
-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삶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하였습니다. (RC2)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함께하는 소공동체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성가 25장 ‘사랑의 하느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악보는 시작 성가에 있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나누는 이야기

사순절을 보내면서

장성희 아녜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필리피서 4장 6절)

이 말씀을 늘 가슴과 머리에 새기며 사셨던 저의 친정어머니께서 넉 달 전 11월 17일 93세로 생을 마감하시며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정말 몰랐는데 신앙 속에서 살다보니 자녀와 건강,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많이도 받은 것 같구나. 너희들도 부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임종까지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어머니를 통하여 가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민 생활 40여 년을 늘 어머니의 기도와 염려를 양식처럼 먹고 살았지만, 저는 맏딸로서 모든 게 당연한 일로만 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천국 가신 후에 알게 된 것은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시며 노후와 사후 준비를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30년 새벽기도 근속 개근상을 받으셨으며 평소 하시던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가난한 과부의 렘톤 두 닢의 헌금 실천을 끝까지 손수 보여 주시며 열심히 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셔서 본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의 남은 5남매들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로 대신합니다.

큰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니의 권유로 15년 전 처음으로 가까이 한 성경을 필사 2번, 통독 8번을 이번 사순절에 마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고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더 가까이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 주님께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달게 해 주신다.”** (하바국 3장 19절)는 말씀으로 은퇴 후 남은 인생 여정을 감사와 영광 드리며 살아가기를 청해봅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